

한국 축산물 위생 처리 협회

협회지 제 50-1호 2003년 2월 6일(목)

제목1: 2003년도 정기총회 개최

2003년도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의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1, 일시 : 2003년 2월 14일(금요일 12시)
- 2, 장소 : 축산물 등급판정소 본소내 회의실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 3, 의제 : ① 도축수수료 현실화 방안의 건
② 등급판정수수료징수대행료를 협회비로 대체의 건
③ 가입비, 월회비, 용역비 징수 및 조정의 건
④ 2002년도 수입, 지출 결산승인의 건
⑤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예산(안)승인의 건
⑥ 기타 현안
- 4, 발표 : 도축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최종안 연구 발표
- 권기정 자문위원 -

제목2: 축산물중 유해잔류물질방지 및 HACCP 전국 순회교육 실시 계획

농림부는 축산물 유해물질 방지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안전축산물 생산과 HACCP를 조기에 정착시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교육은 축산농가와 각 지방자치단체 축산물위생 담당 공무원, 도축업과 집유업 및 축산가공업자 등 1,200명이 대상이다.

□ 교육내용

교육일		교육 내용	강사	
일자	시간		소속	성명
'03.2.19 ~ 2.20(1차)	13:00 ~ 3:20	◦ 등록	농협시도	-
'03.2.24 ~ 2.25(2차)	13:20 ~ 4:00	◦ 인사말 ◦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방안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이홍섭 서기관
	14:10 ~ 4:50	◦ 축산물 잔류방지 및 HACCP추진실태	주관시도	축산담당과장
	15:00 ~ 5:40	◦ 제조물 책임법(P/L) 이해와 대처방안	농협중앙회 컨설팅지원실	김기양 팀장
	15:50 ~ 16:30	◦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방지대책	검역원 특수독성과	손성완 과장
	16:40 ~ 7:20	◦ 축산물 작업장의 HACCP적용 추진 정 책방향	검역원 축산물안전과	곽형근 과장

일 자	권역별	도 별	장 소	소관기관
2. 19(수)	호남권	전남·전북·광주	전북어린이 회관(전주)	전북도청 농협전북지역본부
2. 20(목)	영남권	경북·경남·대구·부산·울산	경북농업인회관 (대구시 북구 동호동 농업기술원 내)	경북도청 농협경북지역본부
2. 24(월)	경가 강원권	경기·강원·서울·인천	농촌진흥청 농업연수부 대강당(수원)	경기도청 농협경기지역본부
2. 25(화)	충청권	충남·충북·대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청원)	충북도청 농협충북지역본부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지 제 50-2호 2003년 2월 6일(목)

제목3: 양돈협회, 살처분용 돼지 전살차량 제작·운영

양돈협회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긴급 살처분 할 수 있는 돼지 전살차량을 지난 21일 국내·외 최초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전살차량은 600볼트 이상의 고전압을 이용, 전기충격으로 전살시키는 방법으로 살처분 대상 돼지를 10초당 1두씩 전살하는 장치가 탑재돼 있다.
양돈협회는 이번 살처분 전살차량 제작·운영으로 인해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살처분과 살처분에 따른 인력 및 혐오감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체: 한국정보문화

제목4: 지난해 한우도축두수- 18.5%감소, 돼지-7%증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암소도축 증가에 따른 송아지생산 감소여파로 지난해 한우도축마리수는 44만8594마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도축마리수는 전년의 55만499마리보다 18.5%인 10만1905여마리가 감소한 수치다.
농림부가 최근 발표한 2002년 축종별 도축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소도축마리수는 한우 44만8594마리, 젖소 17만3732마리, 육우 8801마리, 교잡우 1897마리 등 총 63만3024마리로 전년대비 13% 감소했다.
돼지도축마리수는 1533만8432마리를 기록해 전년보다 101만4161마리인 7%가 증가해 사육마리수 증가율 3%를 훨씬 상회했다. 닭은 4억9731만1910마리로 전년의 4억4287만253마리보다 5444만1657마리인 12%나 늘었다. 이는 종계수입 증가에 따른 사육마리수 증가율이 6%나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발체: 농수축산신문

제목4: 수입생우 559두 인천항 외항 대기중

-수입생우 5백59두, 흑한과 파도 등으로 인천항 외항에서 대기 중-
호주산 수입 생우 8백47두중 2백88두는 지난달 26일 새벽 부산 감천항 동양부두에 도착,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 계류장에 하역돼 질병 등 정밀검역을 받고 있으나 나머지 5백59두는 29일까지 흑한과 파도 등으로 인천항 외항에서 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들어온 호주산 수입생우의 품종은 앵거스와 헤어포드, 앵거스와 헤어포드 교잡종 등으로 지난10월 들어온 수입생우 5백63두가 앵거스종이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지난 10월 수입생우가 들어왔을 때와 같이 검역원 계류장에 들어가는 것은 막지 않고 검역 후 농가입식 과정에서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입생우가 검역을 마친 후 전북 진안군의 전종택씨 농장에 입식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주군과 장수군지역 한우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입식저지를 강력히 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수입생우가 들어와 사육되고 있는 경기 화성의 태평농장이 사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들어오는 수입생우도 한우농가들의 입식 저지와 사료확보 문제 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체: 축산신문

TEL 031-391-9767, FAX 031-395-6661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사)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 구좌 : 농협 군포 남지점 : 장환달 1104 - 02 - 043981